



국립공원 프로필

국토의 70%가 삼림으로 덮여 아한대에서 아열대까지 다양한 환경과 동식물로 둘러싸인 일본 열도. 풍부하고 아름다운 일본의 자연을 대표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이다.

일본의 국립공원은 1931년 제도를 창설하여, 70년 남짓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홋카이도(北海道)에서 류큐열도(琉球列島)까지 29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어 국토 육지 면적의 5%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의 대표적인 자연환경을 커버하는 국립공원은 자연환경과 생물다

양성을 보전하는 일본의 보호지역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국립공원에는 원시적인 삼림과 습지 뿐 만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농경지와 취약주변의 자연, 그리고 역사적, 문화적 경관도 포함되어 있다.

다양한 휴양 활동이나 관광, 교육 활동 등에 이용하는 것도 목적의 하나로 지역 사회와의 공존을 중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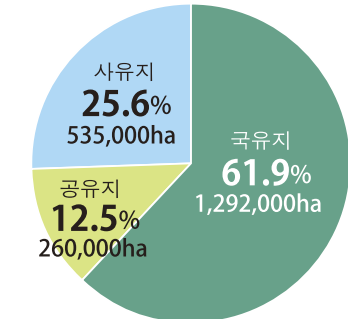
일본의 국립공원은 토지소유에 관

계없이 지정된다. 공원 내의 국유지라 할지라도 많은 토지가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토지소유자는 물론 다양한 관계자와 산업 활동과 토지이용의 조정을 통하여 자연 자원의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양립시켜 가는 것이 일본 국립공원 관리의 기본이 되고 있다.

국립공원의 관리는 지역계획에 의거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원구역은 자연환경과 경관의 특성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보호되는 특별보호지구, 공원구역의 주체를 이루는 특별지역, 그리고 완충지역으로서 보통지역, 이렇게 3개의 존으로 구분되어 있고, 수목의 벌채와 건설공사 등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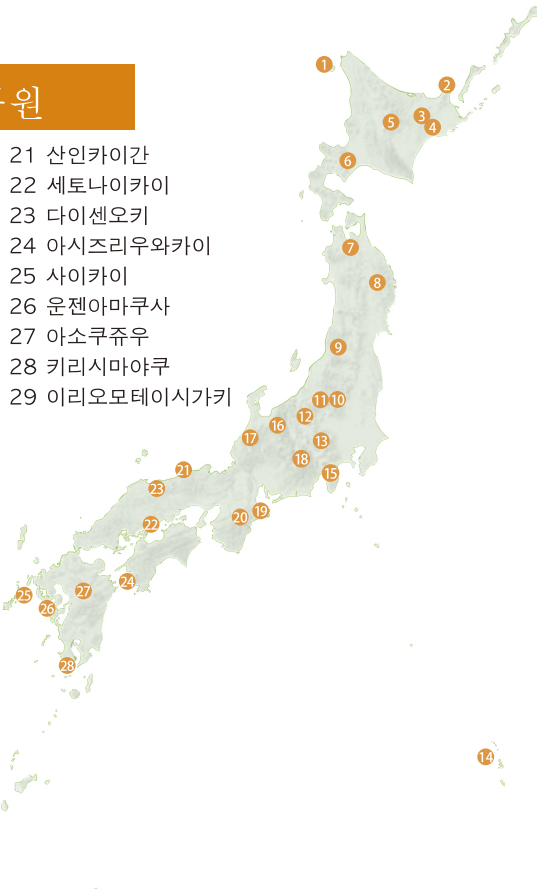
국립공원의 현장관리는 환경성의 지방 환경 사무소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있다. 각 공원에는 자연보호관이 배치되어 개발행위의 조정, 이용, 시설의 정비, 보급 개발·해설, 자연환경 모니터링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일본 국립공원의 토지 소유



일본의 국립공원

- 1 리시리레분사로베츠
- 2 시레토코
- 3 아칸
- 4 쿠시로습지
- 5 다이세츠산
- 6 시코츠토우야
- 7 토와다하치만타이
- 8 리쿠추우카이간
- 9 반다이아사히
- 10 닛코
- 11 오제
- 12 조우신에츠코우겐
- 13 치치부타마카이
- 14 오가사와라
- 15 후지하코네이즈
- 16 추우부산가쿠
- 17 하쿠산
- 18 미나미알프스
- 19 이세지마
- 20 요시노쿠마노
- 21 산인카이간
- 22 세토나이카이
- 23 다이센오키
- 24 아시즈리우와카이
- 25 사이카이
- 26 운젠아마쿠사
- 27 아소쿠쥬우
- 28 키리시마야쿠
- 29 이리오모테이시카키



홋카이도의 국립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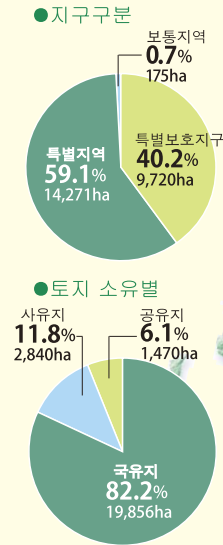


1 리시리레분사로베츠 (利尻礼文サロベツ) Rishiri-Rebun-Sarobetsu

지정년: 1974.9.20 면적: 24,166ha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국립공원. 해상의 고립봉우리 리시리섬(利尻島), 고유의 식물을 볼 수 있는 레분섬(礼文島), 그리고 사로베츠강의 하구에 펼쳐진 광대한 사로베츠 습지의 3개 지역으로 이루어지며, 변화가 풍부한 경관과 동식물이 특징이다.

●탐방객수: 117만명 (2007년)



6 시코츠토우야 (支笏洞爺) Shikotsu-Toya

지정년: 1949.5.16 면적: 99,473ha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는 화산과 칼데라호의 경관을 기조로 하는 공원으로 자연성 높은 삼림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삿포로(札幌) 대도시권에 근접하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친근한 휴양의 장소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3 아칸 (阿寒) Akan

지정년: 1934.12.4 면적: 90,481ha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국립공원의 하나. 가문비나무, 분비나무 원시림과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크고 작은 호수가 경관의 기조가 되고 있다. 홋카이도(北海道)다운 자연의 깊이를 느끼게 하는 공원이다. 아직 활동 중인 화산도 있어 각처에서 온천이湧출한다.

2 시레토코 (知床) Shiretoko

지정년: 1964.6.1 면적: 38,633ha

홋카이도의 동북부에 돌출한 시레토코반도의 중앙부에서 선단부가 지정되어 있다. 정주인구는 거의 없고, 바다와 육지가 일체가 된 원시적인 생태계가 남겨져 있어, 불곰, 참수리, 바다사자 등의 대형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2005년에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등록되었다.



4 쿠시로습지 (釧路湿原) Kushiro-Shitsugen

지정년: 1987.7.31 면적: 26,861ha

1987에 지정된 비교적 새로운 국립공원. 쿠시로강의 유역에 넓게 자라는 사초류 등의 저층 습지를 주제로 한 일본 최대의 습지로 탄 두루미 이토우(Hucho perryi) 등 멸종의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귀중한 서식지이기도 하다. 1980년에 일본에서 최초로 람사조약(국제습지조약)의 등록 습지가 되었다.



5 다이세츠산 (大雪山) Daisetsuzan

지정년: 1934.12.4 면적: 226,764ha

22만 6천 ha의 일본 최대 국립공원. 홋카이도(北海道)의 지붕이 되고 있는 2000m급 산맥이 늘어서 있고, 산상에는 고산식물의 대군락이 펼쳐져 있는 원시성 높은 공원이다. 불곰을 시작으로 다양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사진: 사진 윤노 타카시(海野孝) 오오하시 토시하루(大橋年治) 코바야시 미노루(小林実) 코미야마 에리코(小宮山 枝里子) 사노 카츠이치(佐野勝一) 타치바나 토모유키(橘智行) 모리모토 나츠히코(森本夏彦) 야기 마사카즈(八木正和) 야마다 료우조우(山田良造) 하쿠타테 타카시(百武充) 레분정(礼文町) 리시리정(利尻町)(재) 자연환경연구센터((財)自然環境研究センター) (주) 홋카이도 아트사((株)北海道アート社)